

■ 최신 해외정보 - 일본 ■

일본정부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정책대강 결정

일본정부는 지난 11월 25일 '종합적인 TPP관련 정책대강'을 결정하였습니다. 대강의 요지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종합적인 TPP관련 정책대강(안)**I. 기본적인 생각**

TPP는 21세기 아시아·태평양에 자유하고 공정한 '하나의 경제권'을 구축하는 도전적인 시도이다. 이 지역의 성장을 받아드려 아베노믹스의 '성장전략의 비장의 카드'로 한다. 본 정책대강은 TPP효과를 진정으로 일본의 경제재생(經濟再生), 지방창생(地方創生)에 직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TPP의 영향에 관한 일본국민의 불안을 불식하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.

II. TPP 관련정책의 목표**1. TPP의 활용 촉진****(1) 정중한 정보제공 및 상담체제의 정비****① TPP의 보급·계발**

(목표) 세미나·설명회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만족도 60% 이상을 목표로 한다.

② 중견·중소기업 등을 위한 상담체제의 정비

(목표) 상담창구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만족도 60% 이상을 목표로 한다.

- (2) 새로운 시장개척, 글로벌 밸류체인(global value chain) 구축지원
- ① 중견·중소기업 등 신시장개척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의 발본적 강화
(목표) 종합적인 지원의 대상기업이 시장개척·사업확대성공률 60% 이상을 목표로 한다.
 - ② 콘텐츠, 서비스, 기술 등의 수출 촉진
(목표) 2020년까지 약 200억 엔의 방송 콘텐츠 관련 해외시장 매출액을 목표로 한다.
 - ③ 농림수산물·식품 수출의 전략적 추진
(목표) 2020년의 농림수산물·식품의 수출액 1조 엔 목표를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한다.
 - ④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 촉진
(목표) 2020년에 약 30조 엔 인프라시스템의 수주를 목표로 한다.
 - ⑤ 해외전개처 비즈니스 환경정비

2. TPP를 통한 '강한 경제'의 실현

- (1) TPP에 의한 무역·투자의 확대를 국내 경제재생에 직결시키는 대책
 - ① 인노베이션, 기업간·산업간 연계에 의한 생산성 향상 촉진
(목표)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혁신을 낳는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. 2020년에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2.0%로 한다.
 - ② 대내투자활성화 촉진
(목표) 2018년까지 적어도 총 470건(대형투자안건 60건 포함)의 JETRO에 의한 외국기업유치를 목표로 한다.

- (2) 지역의 '수입창출력' 강화
 - ① 지역에 관한 정보발신
(목표) 방일 외국인여행자수가 2000만 명에 되는 해에 외국인관광객에 의한 여행소비액 4조 엔을 목표로 한다.
 - ② 지역 자원의 결집·브랜드화
(목표) 지원대상사업에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적절한 PDCA사이클 확립을 구하여 2010년도에 100% 확립을 목표로 한다.

[출처: 일본정부 내각관방 TPP정부대책본부 '종합적인 TPP관련 정책대강(안)']